

Yeol Eum Son Piano Recital

양면 까레 여성 스카프 Wow!,
핑크 실크 트윌 소재의
90 × 90 사이즈.



Innovation in the making.

Yeol Eum Son Piano Recital
손열음 피아노 리사이틀

2020년 6월 23일(화) / 24일(수)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8PM Tuesday, June 23, 2020
8PM Wednesday, June 24, 2020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피아노, 손열음
Yeol Eum Son, Pianist

YEOL EUM SON Pays Schumann

ONYX 4202



슈만: '크라이슬레리아나',
환상곡 C장조, '아라베스크'

ALSO AVAILABLE

ONYX 4186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소나타 K330, 변주곡 K264,
환상곡 K475

손열음은 폭넓은 다이내믹과 양식에 대한 섬세한 이해를 갖춘 개성적인 연주자이다... 템포는 적절하며, 안단테 악장은 지나치게 감상적이지 않으면서 가장 좋은 의미에서 낭만적이다.

이례적일 정도로 뛰어난 모차르트 데뷔 음반이다.

- 그라모폰

손열음은 (모차르트 협주곡에서) 선명하고 명쾌한 모범적인 연주를 선보이며... 독주곡, 특히 소나타(K330)와 생기 넘치는 변주곡에서는 더욱 훌륭한 연주를 들려준다.

모든 면에서 마음을 끄는 음반이다.

- 더타임즈

슈만 1810-1856
독일

R. Schumann

아라베스크 다장조, 작품번호 18

Arabeske in C Major, Op. 18

7'

슈만 1810-1856
독일

R. Schumann

판타지 다장조, 작품번호 17

Fantasie in C Major, Op. 17

34'

Durchaus phantastisch und leidenschaftlich vorzutragen 시종일관 환상적 분위기, 그리고 열정적으로 연주
Mässig. Durchaus energisch 중간 빠르기. 시종일관 힘차게
Langsam getragen. Durchweg leise zu halten 느린 박자. 끊임없이 조용함을 유지

I N T E R M I S S I O N

슈만 1810-1856
독일

R. Schumann

어린이 정경, 작품번호 15

Kinderszenen, Op. 15

18'

- | | |
|---|-----------------------------------|
| I. Von fremden Ländern und Menschen 낯선 나라들과 사람들 | VIII. Am Kamin 벽난롯가 |
| II. Kuriose Geschichte 신비한 이야기 | IX. Ritter vom Steckenpferd 목마 기사 |
| III. Haschemann 술래잡기 | X. Fast zu Ernst 거의 너무 심각한 정도 |
| IV. Bittendes Kind 보채는 아이 | XI. Fürchtenmachen 무서움 |
| V. Glückes genug 충분히 행복한 | XII. Kind im Einschlummern 잠드는 아이 |
| VI. Wichtige Begebenheit 중요한 사건 | XIII. Der Dichter spricht 시인이 말하다 |
| VII. Träumerei 몽상 | |

슈만 1810-1856
독일

R. Schumann

크라이슬리아나, 작품번호 16

Kreisleriana, Op. 16

33'

- I. Äusserst Bewegt 매우 휘몰아치는
- II. Sehr innig und nicht zu rasch 아주 개인적이고, 빠르지 않게.
- III. Sehr Aufgeregt 아주 흥분해서
- IV. Sehr langsam 아주 느리게
- V. Sehr lebhaft 아주 생동감 있는
- VI. Sehr langsam 아주 느리게
- VII. Sehr rasch 아주 빠르게
- VIII. Schnell und spielend 빠르지만 힘들이지 않는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1828-1840**슈만과 클라라의 시간**

- 1828 _____
법대에 진학한 로베르트 슈만이 저명한 피아노 교사인 프리드리히 비크와 그의 딸 클라라를 처음으로 만난 해다. 이해에 아홉 살이었던 클라라는 벌써 라이프치히의 게반트하우스에서 공연을 하던 피아노 신동.
- 1830 _____
로베르트가 파가니니의 연주를 처음 듣고 음악가가 되기로 마음을 굳힌 해. 하여 비크와 본격적으로 피아노 공부를 시작한다.
- 1832 _____
슈만이 고향 츠비кау에서 자신이 작곡한 작품 몇 개를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연주자로 나서준 것이 클라라. 그녀를 보고 로베르트의 어머니는 ‘언젠가 우리 로베르트와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했단다.
- 1835 _____
이전해에 약혼했던 귀족 소녀 에네스틴 폰 프리켄과 파혼한 로베르트가 이 외중에 클라라와 점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연말을 즈음해서는 둘의 애정 관계가 아예 공공연해졌고, 이를 알게 된 프리드리히 비크가 노발대발한다.
- 1836 _____
새로운 해가 시작하자마자 스승은 딸을 데리고 드레스덴으로 떠나버렸고, 이 즈음에 슈만은 "판타지"의 초고를 쓴다.
- 1837 _____
로베르트와 클라라가 몰래 약혼.
- 1838 _____
2월, 로베르트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스케치 서른여 편 중 열세 편을 묶어 "어린이 정경"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봄에는 사흘 만에 "크라이슬레리아나"를 완성했다. 하지만 둘은 아직도 떨어져 있다.
- 1839 _____
초순에 비엔나에 가 있던 슈만이 "아라베스크"를 완성. 여름이 되자 그는 끝내 장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결혼 허가 청원을 법원에 제출했다.
- 1840 _____
클라라의 스물한 번째 생일 전날, 두 사람이 마침내 결혼에 골인한다.

로베르트 슈만
아라베스크 다장조, 작품번호 18

Robert Schumann
Arabeske in C Major, Op. 18

'아라베스크'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건축 용어다. 문자나 식물의 모형, 기하학적인 모티브를 정교하게 엮은 이 아라비아 풍의 무늬 양식을 음형으로 옮겨낸 셈이다. 작곡가 본인은 이 제목이 곡을 웬만큼 다 설명해 준다고 했고 특별히 “유약한(Schwächlich)”, “여성용(für Damen)”이라는 표현 등을 써가며 이 곡의 섬세함을 설명했다.

로베르트 슈만
판타지 다장조, 작품번호 17

Robert Schumann
Fantasie in C Major, Op. 17

베토벤 기념비의 건립기금을 마련할 곡들을 만들자며 로베르트 슈만에게 처음 연락한 이는 동료 프란츠 리스트였다. 슈만은 ‘소나타’를 쓰리라 마음먹었다. 주로 짧은 ‘성격소품’들을 묶은 모음곡을 써온 그에게 3악장 형식의 소나타에 도전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소나타의 대가 베토벤에 대한 존경심의 발로였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막상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자, 곡의 주제부터 내용까지 모든 게 달라졌다. 당연한 일이었다. 스승의 딸 클라라와 불같은 사랑에 빠진 그에게, 세상은 밤하늘의 해와 달부터 떨어져내리는 빗방울까지 온통 그녀였으니. 딸을 내어 줄 마음은 전혀 없었던 프리드리히 비크는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었다. 만나는 것은 고사하고 서신을 교환하는 것까지 힘들어진 이 불쌍한 연인이 이제 사랑을 표현할 수단이라곤 오로지 음악뿐. 쉴레겔의 4행시, '은밀히 귀 기울이는 자에게, 온갖 대지의 꿈속에서, 나지막한 음이, 모든 음을 뚫고 울려 나온다.'를 앞머리에 붙인 이 곡을 클라라에게 보내며, 로베르트는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그 나지막한 음, 그건 바로 당신». 이렇게 이 곡은 은밀한 편지가 되었다.

슈만 스스로가 자신이 이때까지 지은 곡 중 가장 열정적이라 표현한 1악장은 왼손의 아르페지오로 시작한다. 베이스인 첫 음은 솔, 두 번째 음은 라, 둘의 간격은 사실상 2도지만, 나란히 모여있는 대신 사이에 한 옥타브를 두고 떨어져 버렸다.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가 된 그들처럼, p로 숨을 죽인 왼손이 무색하게 이내 오른손의 선율이 ff로 등장한다. 일곱 마디 내내 거침없는 어조로 노래하는 동안 왼손은 똑같은 베이스 솔을 계속 유지한다. 어떤 것에도 꺾임치 않는 그의 마음과 어떻게 해도 가질 수 없는 그녀처럼... 오른손이 작게 속삭이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베이스도 라로 한 음 올라가 단조 화성을 만들어 그 불안감에 동조한다. 서로 주저하는 듯한 리타르단도를 거쳐 다시 처음 주제로 돌아온 선율에, 이번에는 트릴이 더해진다. 처음에는 그 모양새가 사랑을 속삭이는 새의 지저귐 같이 고요하지만, 점차 그 폭이 커지고 이내 광기로 치달는다.

자꾸만 엇갈리는 환상과 현실처럼, 함께 있지 못하는 연인처럼, 오른손과 왼손은 계속 당김음을

주고받는다. 41마디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같은 선율을 노래하는 양손. 다시금 잠시 엇갈리는가 싶다가 제2주제에 도달한 양손은 드디어 장조의 선율, 사랑의 노래를 부른다. 오른손 선율을 왼손이 따라, 왼손을 오른손이 또 따라... 그러다 노래하기를 갑자기 멈춘 양손이 74마디에서 E플랫 음 하나만을 남긴 채 파편처럼 흩어진다. 하나 남은 그 음이 바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모든 음을 뚫고 들려오는 나지막한’ 그 음. 그리고 이것은 이내 기타의 아르페지오를 연상시키는 왼손의 화음으로 바뀌고, 그때 이것을 반주 삼은 오른손이 느닷없이 허공에 세레나데를 새긴다. “난 정말 당신뿐이야!”

막상 이런 노골적인 1악장보다 클라라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은 것은 2악장이었다. 전형적인 게르만의 행진가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폭발하는 사랑의 감정 하나하나를 쏟아낸 이 곡을 받고 클라라는 “8-16마디에서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어”라며 화답했다. 진정한 ‘환상’은 3악장에서 펼쳐진다. 앞 두 악장에 각각 ‘폐허’와 ‘승리’로 소재목을 붙인 그는 이 3악장에 «빛나는 왕관»이라 이름 붙였다.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다시금 같은 선율을 노래하게 된 양손은 결국 축복 속에 당당히 행진가를 제창하고, 이윽고 서로에게 완전히 어우러져 꿈의 세계로 빠져들며 곡은 끝난다. 초고에서는 이 마지막 부분에, 1악장 마지막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나온다. 갑자기 재등장하는 이 오른손 선율은 베토벤의 가곡, <멀리 있는 연인에게>의 선율을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슈만은 출판을 위해 이 곡의 몇 군데를 수정하면서 3악장의 이 부분을 잘라내버렸다. 그가 맞았다. 이듬 해에 마침내 클라라와의 결혼에 골인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멀리 가야닌 그녀의 ‘가까이’에 남았으니까.

CREZIA

로베르트 슈만

어린이 정경, 작품번호 15

Robert Schumann

Kinderszenen, Op. 15

슈만이 ‘아이들’을 유달리 좋아했던 것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처럼 보인다. 음악과 글에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20년이 채 안 되는 결혼 기간 동안 아홉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낳기까지 했으니... ‘아이’가 아예 제목에 명시된 곡만도 여러 곡인데 그중에서 이 “어린이 정경”만은 다른 작품들, “어린이를 위한 앨범 작품번호 68”, “어린이를 위한 가곡집 작품번호 79”, “어린이를 위한 세 개의 소나타 작품번호 118”과 조금 다르다. 실제 어린 아이들이 연습하고 연주하기를 기대하고 만든 이 작품들과는 다른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어른들의 음악이 이 “어린이 정경”이다.

로베르트 슈만

크라이슬리아나, 작품번호 16

Robert Schumann

Kreisleriana, Op. 16

피아니스트로 살면서, 지금껏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은 아마도 이것일 것 같다. “가장 좋아하는 피아노 곡은 무엇인가요?” 사실 쉬운 질문은 아니다. 하늘에 흩뿌려진 별처럼 많은 게 피아노 레퍼토리니까. 그

런데도 나는, 이 세상에 있는 피아노 곡이라면 뭐든 다 쳐보고 싶었던 십 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장장 몇 년 동안이나 즐기치게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다. “<크라이슬레리아나>요.”

그러면서도 어린 나는 한동안 이 곡을 배우지 않고 있었다. 물론 애써 참고 있는 거였다. 대신 정확히 스물일곱 살이 되면 이 곡을 연주하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다짐했던 이유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 나흘 만에 이 곡을 써 내려갔던 1838년의 여름날 슈만의 나이가 스물일곱 살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웬지 모르게, 스물 일곱살 정도가 되면 이 곡이 내 몸에 담아질 것 같았다. 눈을 뜨고 있는데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실어증 환자의 절규 같은, 행복할수록 불안하고 불안할수록 헤어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의 이 곡이.

이 곡은 갑자기 시작한다. 아니, 사실 이미 시작된 지 오랜데 우리의 귀가 갑자기 듣기 시작한 것 같은 정도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음들 사이의 균형이 광대가 타고 노는 외출처럼 팽팽해서 끊어질 것만 같은 셋잇단음표 폐시지, 이 음들이 하늘을 향해 내던져지는 곡의 맨 처음 광경. 이 첫 몇 페이지를 무참히 망쳐버린 베토 모이세비치의 1961년 실황 녹음을 나는 한동안 꽤나 좋아했었다. 단지 그가 내 이상중한 사람이었기에 비호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마치 세찬 바람에 떠밀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발을 내딛는 것 같은 기분이 가감 없이 그대로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이 곡보다 먼저 쓰인 곡 중에서 형식상 이 곡과 가장 닮은 곡은 <다비드동맹춤집(1837)>이겠다. 슈만의 두 자아 플로레스탄과 오이제비우스가 사이 좋게 한 곡씩을 번갈아 썼던 걸모습이 그대로인데, 다만 <다비드동맹춤집>이 이 둘의 고고한 시상을 담은 시집이었다면 <크라이슬레리아나>는 비밀 일기장이다. 어쩌면 아무도 엿보지 않을 일기장엔, 중간은 잘 없고 날카로운 양 끝이 난무하다. 예를 들면 플로레스탄임이 분명한 제1곡의 소용돌이가 까맣게 잊힐 정도로, 이 어지는 오이제비우스의 제2곡은 우유부단하기가 이를 데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특이한 건, 이전까지의 슈만의 작품들에서는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평생 서로 마주할 일 없을 것처럼 보였던 플로레스탄과 오이제비우스가 이 곡에서는 꼭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어쩌면 둘은 같은 사람인 걸까? 싶을 정도로... (오이제비우스의) 제2곡은 답답해 보이지만 실은 지칠 줄 모르는 물음표들로 가득 차 있고, 제4곡은 평온하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이내 불안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어쩌면 그나마 유일하게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할 수 있을 제6곡도 의심과 의문의 긴 터널 한가운데를 힘겹게 지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소 한결같이, 어둡다. 넘치는 에너지는 생산적으로 분출되기보다는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일쑤고, 예민한 마음은 숨겨지지가 않고, 상상은 자꾸만 두려움이 된다. ‘판타지> 같은 애가인 줄 알았더니?’라고 묻는다면 - 물론이다. 이 곡만큼 노골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한 곡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다만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에 빠진 그 누군가라서, 조금, 혹은 많이 다른 거겠다.

글 | 손열음



©enw000gchul

PEDIA

피아니스트

손열음

Yeol Eum Son

Pianist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손열음은 2011년 제14회 차이콥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준우승과 함께 모차르트 협주곡 최고연주상, 콩쿠르 위촉작품 최고연주상을 휩쓸며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로린 마젤, 네빌 마리너, 드미트리 키타옌코, 발레리 게르기예프, 로렌스 포스터, 유리 바슈넛 등의 지휘로 뉴욕, 로테르담, 이스라엘, 체코 필하모닉, NHK심포니,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니, 쾰른 귀체니히,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 및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등 세계 정상급의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가졌으며, 런던 프롬스, 독일 라인가우 페스티벌, 바트 키싱엔 페스티벌, 프랑스 브장송 페스티벌, 폴란드 베토벤 부활절 페스티벌, 스웨덴발틱시 페스티벌, 슬로베니아 류블리아나 페스티벌, 미국 아스펜 음악제 등에 초청되어 연주하였다.

2007년 뉴욕 UN 총회장에서 열린 반기문 UN 사무총장 취임 축하 연주, 2012년 한국-오스트리아 수교 120주년을 기념한 오스트리아 대통령궁 음악회에서 연주, 2013년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만찬에서 연주하는 등 대한민국의 문화사절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제1회 ‘금호음악인상’, ‘난파음악상’, 문화체육관광부의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하고 동아일보의 ‘한국을 빛낼 100인’에 3년 연속 선정되어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피아니스트로 자리매김했다.

중앙일보의 주말 에디션인 중앙선데이의 최연소 고정 칼럼니스트로 5년간 기고해 온 칼럼들을 모아 에세이집 <하노버에서 온 음악편지>를 출간하기도 한 그녀는 강원도 원주시와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장인 예술의전당의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이다. 명교수 아리에 바르디의 문하에서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의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후 2018년 3월부터 평창대관령음악제의 예술감독으로 위촉되어 음악제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Yeol Eum Son's graceful and timeless interpretations, crystalline touch and versatile, thrilling performances have caught the attention of audiences worldwide. Praised for her widely eclectic concert repertoire, ranging from Bach, all-Mozart, early German and Russian Romantic to Gershwin and Ligeti, Yeol Eum has collaborated with major ensembles worldwide such as Gürzenich-Orchester Köln, Konzerthausorchester Berlin, Dresdner Philharmoniker, The Tonkünstler Orchestra at the Grafenegg Festival, Bergen Philharmonic, Orchestre Philharmonique de Radio France, Orchestre de la Suisse Romande, Seoul Philharmonic, St. Petersburg Philharmonic and Moscow Virtuosi among many others.

Yeol Eum performs with conductors such as Dmitri Kitayenko, Valery Gergiev, Vasily Petrenko, Vladimir Spivakov, Andrew Manze, Susanna Mälkki, Omer Meir Wellber, Cristian Măcelaru, Pietari Inkinen, Jonathan Nott, Mikko Franck, Nicholas Collon, Joshua Weilerstein, Joana Carneiro, Pablo González, Case Scaglione, Roberto González-Monjas and Yan Pascal Tortelier.

Across the 20/21 season Yeol Eum serves as Artist in Residence with the Residentie Orkest from the Hague. In front of the Dutch audience and under the baton of conductors Nick Collon, Pablo González and Joshua Weilerstein, Yeol Eum presents a selection of some of the finest concerti of the piano repertoire including Mozart's Piano Concerto No. 17, Beethoven's Piano Concerto No.4, Chopin's Piano Concerto No. 2 and Ravel's Piano Concerto in G. Beyond Zuiderstrandtheater in the Hague, her residency will take her to some of the major venues across the Netherlands including Amsterdam's Concertgebouw, Apeldoorn's Orpheus and Utrecht's TivoliVredenburg, Yeol Eum also gives a recital at the Hague's Nieuwe Kirk and a Masterclass at the Hague's conservatory.

In summer 2019 Yeol Eum made her Royal Albert Hall and BBC Proms debut with the BBC Philharmonic interpreting Mozart's Piano Concerto No. 15. Her most recent debut with the Liverpool Philharmonic (Beethoven's Emperor Concerto) was met with high acclaim for which Johanna Roberts wrote: Yeol Eum Son throughout demonstrated the technical excellence partnered with lyrical sensitivity that have made her one of the most sought-after concert pianists in a virtuoso performance that was much appreciated by the audience. During her recent UK tour with the Iceland Symphony Orchestra, Yeol Eum returned to London's Cadogan Hall and debuted at Edinburgh's Usher Hall and at Basingstoke's the Anvil Concert Hall (Ravel's Piano Concerto for the left hand). Following her hugely successful debut with Aurora orchestra earlier in 2019, Yeol Eum was instantly re-invited and features as a soloist on their March 2020 tour under Nick Collon (Mozart Piano Concerto No.23) with concerts taking place at King's Place in London as well as at St George's concert hall in Bristol and at the Apex concert hall in Bury St Edmunds. Yeol Eum subsequently makes her debut with Aurora Orchestra at the opening of the Heidelberger Frühling festival.

A distinguished Mozart interpreter, in the recent concert seasons, Yeol Eum made major UK debuts with the CBSO in Birmingham (Mozart's Piano Concerto No 21) and at London's Cadogan

Hall with the Academy of St. Martin in the Fields (Mozart's Piano Concerti No's 8 & 21). Her London debut coincided with Onyx CD release of a highly acclaimed all-Mozart recording featuring Mozart's Piano Concerto No.21 with the Academy of St Martin in the Fields under Sir Neville Marriner for whom it was the very last recording. According to The Times Yeol Eum Son is a model of clarity and fleetness whilst Gramophone called the recording an uncommonly fine Mozartian debut.

Further concerti debuts across the 19/20 season and beyond include collaborations with Budapest Festival Orchestra (Rachmaninov No. 2); West Australian Symphony Orchestra (Mozart No. 21); New Zealand Symphony Orchestra (Mozart No. 27); St Paul Chamber Orchestra (play-direct of Beethoven No.4); Bournemouth Symphony Orchestra (Beethoven No.4); Liège Philharmonic (Gershwin Rhapsody in Blue and Variations on I got Rhythm); Helsinki Philharmonic (Yashiro Piano Concerto); WDR Symphony Orchestra Cologne at the RadiRo Festival in Bucharest (Rachmaninov No. 2); Philharmonie de Paris debut with Orchestre National d'Île-de-France (Rachmaninov No.2); RTVE Symphony Orchestra (Szymanowski Sinfonia Concertante) and a tour of Belgium with the Flanders Symphony Orchestra (Liszt No.1). Following her previous successful collaborations, Yeol Eum returns to Gävle Symphony Orchestra (Chopin No.2), Bergen Philharmonic (Rachmaninov No.2), Gürzenich Orchestra Cologne (Prokofiev No.2) and Deutsche Radio Philharmonie Saarbrücken (Prokofiev No.3).

An avid chamber musician, in 2018 Yeol Eum was appointed Artistic Director of Music in PyeongChang, the biggest music festival in her native Korea. Yeol Eum is responsible for programming both summer and winter festivals at the Olympic site in PyeongChang. Further chamber highlights in 2020 include appearances at Philharmonie Cologne for collaborations with the principle players from WDR Symphony Orchestra Cologne (Beethoven's Piano Concerto No. 4 arranged for Piano and String Quintet) and with Quatuor Modigliani.

Yeol Eum's new releases include two DECCA albums: recital CD Modern Times- featuring solo piano music written between 1910-1920 by Berg, Prokofiev, Stravinsky and Ravel, and Schumann and Brahms CD with violinist Clara-Jumi Kang. Previous albums include debut CD of complete Chopin Etudes (2004); Chopin Nocturnes for Piano and Strings (2008); prize-winning Cliburn Competition live performance (2009) and a multi-channel SACD O' New World Music (2012).

Yeol Eum is Honorary Ambassador of the Seoul Arts Center and her home city of Wonju. A double Second Prize winner at the Tchaikovsky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in 2011 and at the 13th Van Cliburn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in 2009, Yeol Eum Son was a student of Arie Vardi at the Hochschule für Musik Theater und Medien Hannover in Germany, where she now lives. She holds a degree from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15만 공연애호가들의 선택 Club BALCONY가 제안하는 품격있는 문화예술의 경험과 서비스

클럽발코니와 함께 감동의 문화생활을 설계해보세요!



JOIN Club BALCONY!

Friends | 무료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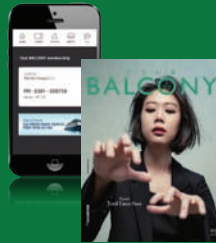
예매수수료 없이 예매
이메일 뉴스레터와 ditto class tv 공연 소식, 이벤트 참여 기회 제공

Smart | 유료회원

연회비 3만원으로 크레디아 및 파트너스 기획공연 5~30% 할인 혜택
크레디아 기획공연 티켓 오픈 시 무료 SMS서비스, 단독 선예매 및 예매, 취소 수수료 면제
고품격 문화계간지 Club BALCONY 매거진 무료 우송

CIELOS Club | 후원회원

10년 동안 연간 4회 이상의 프라이빗 음악회, 전시회, 렉처 초대 (동반 1인 포함 무료참석)
씨엘로스 회원만을 위한 공연 패키지 상품 혜택 (30~50% 할인 및 좌석 우위)
가입비는 신예 아티스트와 실내악 무대의 발굴 및 후원에 활용



Upcoming Programs

클럽발코니 렉처 프로그램

- ↳ 친절한 디토씨 '베토벤 탄생 250주년' 렉처 (강연: 황지원) 1/7 2 오프트
- ↳ 여름 특집 '베토벤의 커피' 스페셜 렉처 (강연: 조희창) | 8월 중 예정

클럽발코니 여행 프로그램

- ↳ 평창대관령음악제 문화여행 1박2일 (7/25~26, 8/1~2)

dittoclass.tv **new**

클래식으로 나눌 수 있는 모든 이야기, 음악으로 공감하는 공간 디토 클래스tv

방송일정

디토 스튜디오 | 상시 업데이트
최강의 클래식포럼 ASMR 숏숏클래식 | 수 오후 6시
잔잔x솔직담백한 ASMR 큐피디의 땡큐포더뮤직 | 금 오후 6시
클럽발코니 FOC : Friends of Club BALCONY | 월 1회
클럽발코니 LIFE & CLASS | 월 1회

클라라 주미 강

CLARA-JUMI KANG

바이올린 / VIOLIN

피아노 / PIANO

4년 만에 만나는 눈부신 듀오

손열음

YEOL EUM SON

라벨 바이올린 소나타 제1번 3단조 | 스트라빈스키 디베르티멘토 '요정의 키스' | 프로코피예프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다섯 개의 멜로디 | 스트라우스 바이올린 소나타 E플랫장조

2020.9.4 FRI 8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9.2 제주아트센터 | 9.5 수원SK아트리움 | 9.6 고양아람누리 | 9.8 구미시문화예술회관 | 9.9 함안문화예술회관 | 9.10 대구수성아트피아

손열음 피아노 리사이틀
CREDIA

CREDIA MUSIC & ARTISTS

CREDIA
INTERNATIONAL

CREDIA
ENTERTAINMENT





CREDIA Music & Artists 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 Music & Artists 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 Music & Artists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크레디아 페이지(www.credia.co.kr)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REDIA Music & Artists

www.credia.co.kr